

울산지역 결혼이주여성 자녀양육 실태¹⁾

이혜진(울산여성가족개발원 부연구위원)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으로 입국한 후 임신, 출산, 자녀 돌봄을 계기로 한국생활에서 다양한 불편요소와 불안을 경험하고 있음.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연결망도 확장하지만, 가정 내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 습득이 어려운 경우나 한국에서 의지할 수 있는 지인이나 기관을 만나지 못할 경우 결혼이주여성 스스로 자녀양육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으로 알아보고 자녀양육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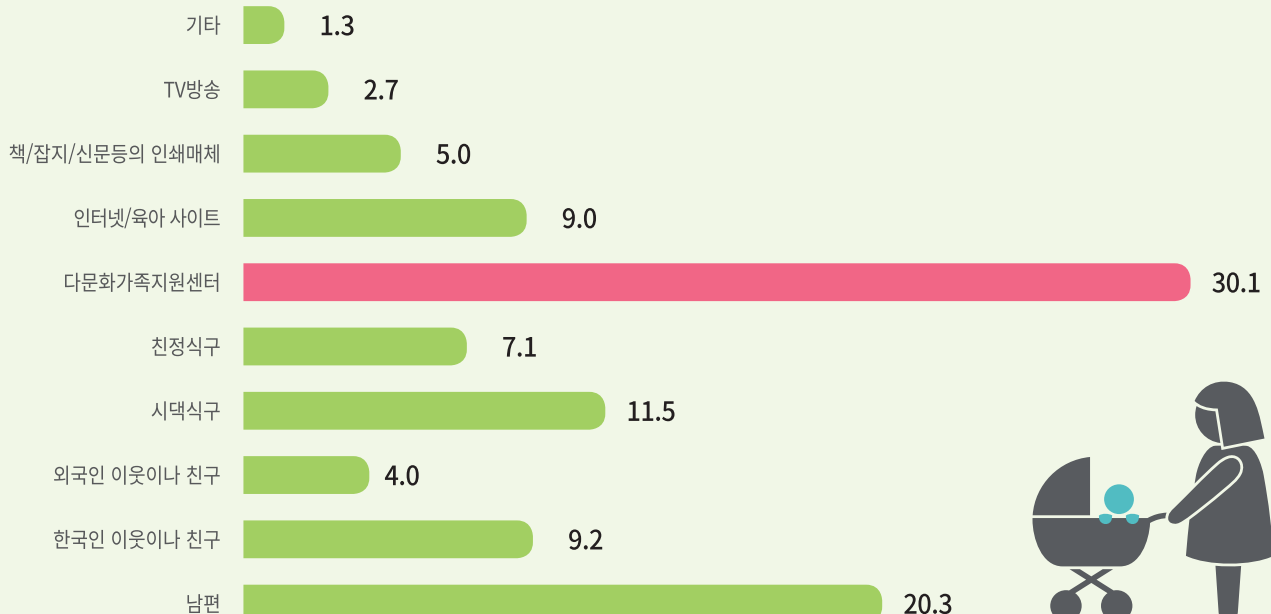
이에 따라 **울산여성가족 BRIEF 제10호(2018)**에서는, 2017년에 실시한 「울산광역시 결혼이주여성 자녀양육 실태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울산지역 결혼이주여성 자녀양육 실태를 살펴보고자 함²⁾.

자녀양육에 관한 지식·정보 제공자 또는 기관

전체 응답자의 30.1%가 자녀양육에 관한 지식·정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받고 있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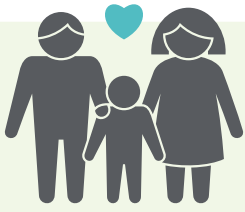
- 본 설문조사는 울산 전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녀양육에 관한 지식·정보 제공자 또는 기관에 대한 질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응답으로 편중될 가능성이 있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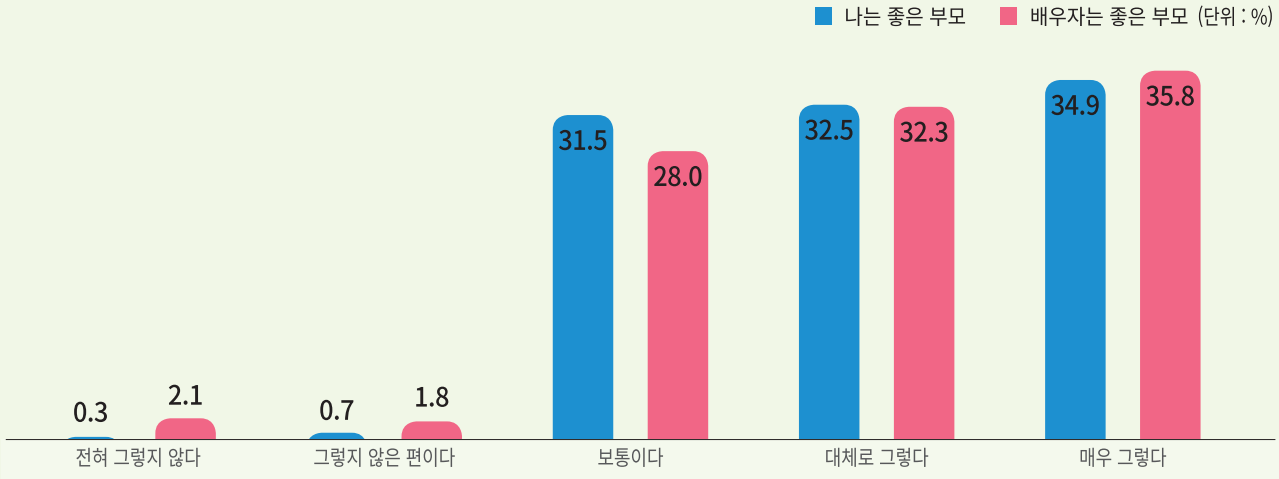
1) 본 브리프는 2017년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자체연구과제인 「울산광역시 결혼이주여성 자녀양육 실태 연구 (이혜진, 김채윤)」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2) 본 설문조사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녀를 양육 중인 결혼이주여성 302명을 대상으로 2017년 3월에서 7월까지 진행되었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역할 평가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역할에 대해서 좋은 부모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라고 평가하는 비율은 본인 67.4%, 배우자 68.1%로 나타났음



자녀양육의 어려운 점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로서 가장 어려운 점 '자녀에게 한국어를 직접 가르치기 어려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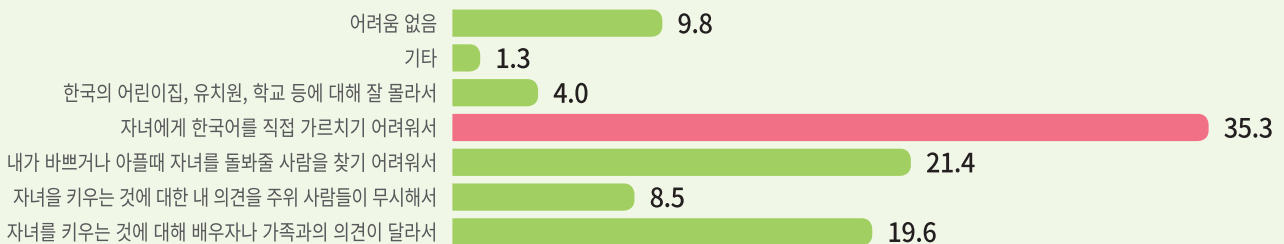
- 그 다음으로 '내가 바쁘거나 아플 때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 어려워서' 21.4% 등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응답으로는 다양한 사항들이 다중응답으로 기술되었으며, '일자리 갖기가 힘들다', '자녀를 키우는데 지식이(정보가) 부족해서'라는 의견이 있었음.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어려운 점 '다른 학부모들과 대화가 어려워 정보가 부족해서'

- 그 다음으로는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알지 못해서' 16.1% 등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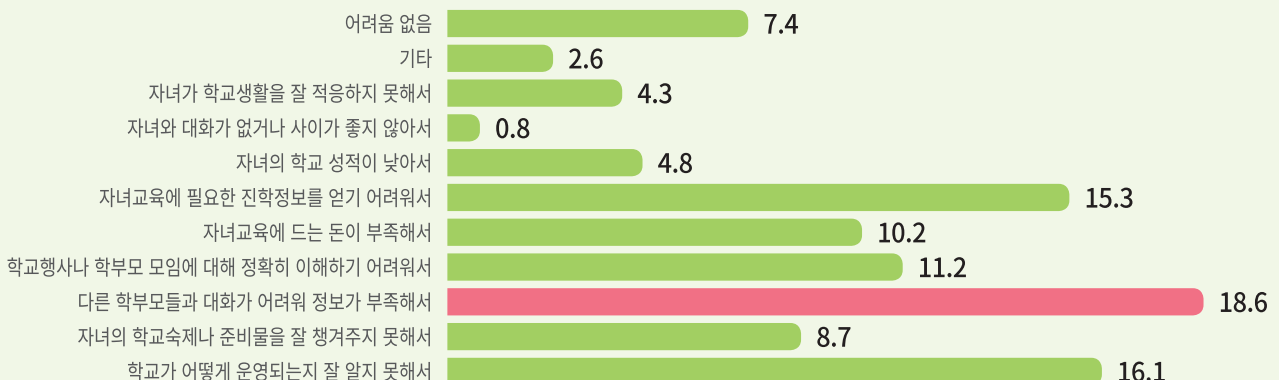
미취학 자녀 양육 어려운점

(단위 : %)



취학 자녀 양육 어려운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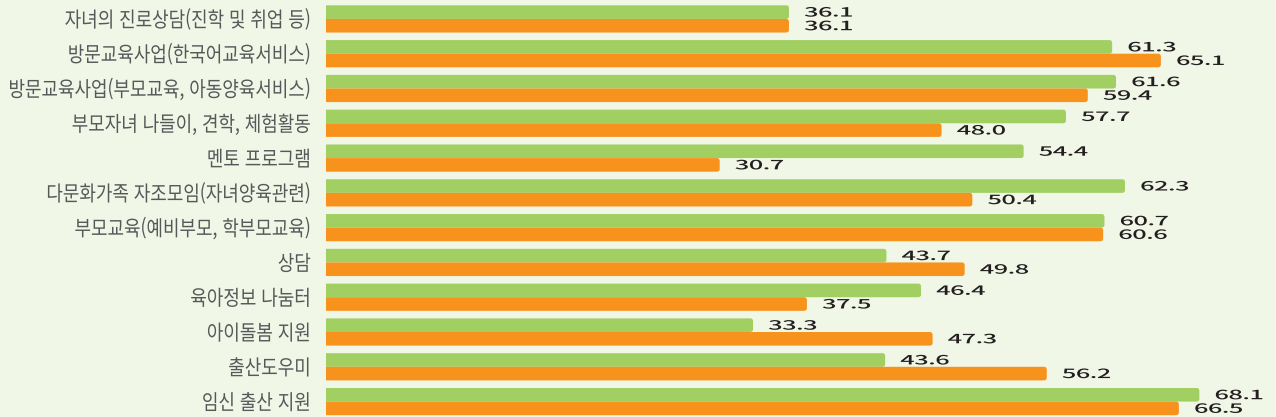


자녀양육 관련 부모대상 서비스 인지, 경험, 도움 정도

가장 인지가 높았던 서비스, 가장 경험 정도가 많았던 서비스는 '임신 출산 지원', 가장 도움 정도가 높았던 서비스는 '방문교육사업(한국어교육서비스)'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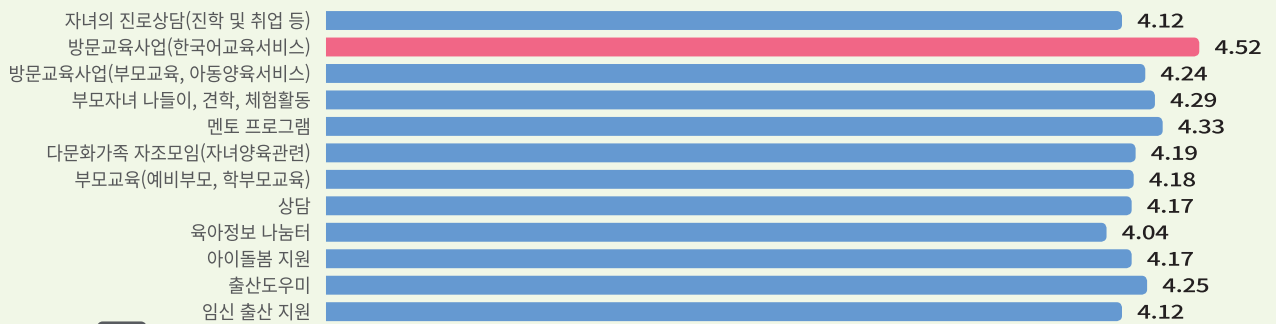
자녀양육 관련 부모대상 서비스 인지 및 경험 정도

■ 경험비율 ■ 인지비율 (단위: %)



자녀양육 관련 부모대상 서비스 도움 정도(5점 척도)

(단위: 점)



자녀대상 서비스 인지, 경험, 도움 정도

가장 인지가 높았던 서비스는 '방문교육사업(한국어교육서비스)', 가장 경험 정도가 많았던 서비스는 '무료 자녀건강검진', 가장 도움 정도가 높았던 서비스는 '다문화유치원'으로 나타났음.

자녀대상 서비스 인지 및 경험 정도

■ 경험비율 ■ 인지비율 (단위: %)



자녀대상 서비스 도움 정도(5점 척도)

(단위: 점)



시사점



다문화가정을 위한 자녀양육 관련 정보 제공 확장

-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연결망도 확장하고 있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장 의지하는 기관이었으며, 실제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가족의 반대나 경제적 이유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결혼이주여성도 있음. 이러한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추가조사가 실시될 필요가 있으나 발굴이 용이하지 않음.
- 일반인 대상 자녀양육 서비스에 대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이용이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이용하더라도 그다지 만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기존의 자녀양육 서비스를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언어 정보를 제공하거나, 알기 쉬운 한국어로 설명을 하는 등 양육 서비스 이용에 대한 쉽고 세심한 정보 전달이 필요함. 자주 이용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행복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공공기관이나 다양한 에스닉그룹들이 자주 활용하는 SNS를 통해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을 것임.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자녀양육 프로그램 마련 보급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주여성 중에서도 초기 입국자나 미취학 자녀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결혼이주여성 대상 프로그램의 다변화 및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그 중에서도 학교생활이나 교과목 학습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은 아직 미흡한 수준임.
-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의 학습지원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할 필요가 있으나,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스스로 자녀 돌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딜레마에 빠져 있음. 이것은 다문화가정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니지만, ‘자녀를 돌보면서 경제활동도 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음.